

헝가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9.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93천 Km ²	G D P	1,547억 달러 (2008년)
인구	10.01백만 명 (2008년)	1 인 당 GDP	15,488달러 (2008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Forint(Ft)
대외정책	Euro통화 가입(2010년 이후)	환율 (달러당)	172.11(2008년)

- 1980년대 후반부터 체제전환을 시작하였고, EU, OECD, 여타 국제기구들로부터 선도적인 체제전환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OECD(1990), NATO(1999) 가입에 이어 2004년 5월 1일 EU에 가입함.
- 2004년 하반기 이후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국가들의 경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성장이 부진하기 시작하더니, 2008년 10월 말, IMF, EU 및 세계은행으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함. 2010년 이후 유로화 도입을 위하여 경제정책 및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문제가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있음.
- 2007년 이후 경기침체 국면 진입 및 외채 누적, 2008년 4월 연정붕괴 및 2009년 4월 과도내각 출범 등으로 정치경제 상황이 다소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이 우려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제성장률	3.9	4.0	1.2	0.6	-7.0
재정수지 / GDP	-7.0	-8.1	-4.4	-3.7	-4.3
소비자물가상승률	3.6	3.9	7.9	6.1	4.8

자료: IMF, EIU.

□ 경제성장 둔화로 경기침체

- EU에 가입한 2004년 4.8%의 실질 GDP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6년 말과 2007년 초 강력한 긴축재정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2007년에는 1.2%로 경제성장률은 급격한 둔화추세를 나타냄.
- 2008년에는 가처분 소득감소, 경기악화 및 개인채무 누적 이외에도 긴축정책의 지속적 시행으로 인하여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헝가리 주요 무역상대국인 유로존의 경기침체 및 EU회원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을 받아 0.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실업률이 9% 대로 높은 편인데다 IMF 차관지원 조건 충족을 위한 긴축 재정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은 -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 이후 경기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소비자 물가의 급등현상 다소진정

- 신흥유럽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헝가리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07년 중 식료품(11.5%), 연료 및 전기요금(24.6%) 가격상승으로 8%에 근접함.
- 2008년 상반기 중 상반기에 유가 및 식료품 가격상승으로 소비자물가는 상승조짐을 나타내다가, 하반기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제유가 및 식료품가격이 오히려 급락하며 상승률이 둔화되어 6.1%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VAT가 인상(20%→25%)되기는 하였으나, 식료품과 생필품에 대한 VAT는 18%로 오히려 하락하였고, 포인트화가 강세를 보여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음. 그러나 7월 현재 에너지나 서비스 부문의 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각각 7.7%, 6%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2009년도 물가상승률은 4.8%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중앙은행의 중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 3% 기준 1% 포인트 이내 밴드 운용

□ 재정수지 적자의 개선

- 2007년에는 공무원의 임금과 고용의 실질적인 감축, 투자지출 축소 등의 긴축 재정정책 시행과 더불어 간접세 수입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폭은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신흥유럽국가 평균치인 0.4% 흑자와는 큰 격차를 발생시켰음.
- 2008년에는 정부의 재정지출 감축 등 강도 높은 긴축 재정정책 시행으로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3.7%로 전년보다 다소 하락하였으며, 2009년에도 IMF와 합의한 기준인 3.9%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금, 공공부문 임금 삭감 등이 계획되고 있어, 재정수지 적자폭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은행부문의 과도한 외국인 자본 의존도

- 2008년 10월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자국내 채권 및 증권시장에서의 자금유출현상은 완화되고 있으나, 외국계 은행이 헝가리내 은행자산의 80%를 차지하고 헝가리 8대 은행 중 OTP 은행이 유일한 헝가리 은행일 정도로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외경제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음.

□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고 있는 산업구조

- 1950년 5개년 경제개발계획으로 노동 및 에너지 집약적인 중공업부문이 발달한 반면 전통적인 경공업 및 서비스업의 발달이 부진하였음. 1989년 공산체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전통적 공업 부문의 성장과 더불어 무역 및 숙박요식업, 부동산업 등 GDP대비 서비스업의 생산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7년에는 내수시장 위축으로 산업생산증가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정도로 제조업의 수출호조가 산업생산 증가율(7.1%) 상승을 견인하였으나, 2008년 들어 유로존의 경기둔화로 헝가리의 경제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산업생산 증가율도 -0.1%로 크게 둔화되었음.
- 2009년에는 산업생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출 의존적인 자동차 및 기계류 산업이 경기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아 -16.0%의 산업생산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산업생산 증가율: 7.9%(2007) → -0.1%(2008) → -16.0%(2009)

□ 기계 및 운송장비 수출입 중심의 무역구조

- 주요 수출품목(2008)은 기계 및 운송장비(61.2%), 기타 제조품(26.9%), 식음료 및 담배(6.7%), 원자재(2.4%)이며, 주요 수입품목(2008): 기계 및 운송장비(49.6%), 기타 제조품(32.0%), 연료 및 전기(12.9%), 식음료 및 담배(4.7%)임.

나. 성장 잠재력

□ 실물경기 2010년까지 마이너스 성장 이후 회복할 전망

- 2009년 3월까지 지속된 포린트화 약세로 크게 증가한 외화표시 가계대출 (전체대출의 70%)의 원리금 상환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긴축 재정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실물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2009년에는 -6~-7%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됨.
- 2008년 12월 이래(2009년 3월, -15.6% 제외) 산업생산증가율은 20%대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건설업은 금년 6월 들어 15.9%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오히려 증가

- 기존 EU회원국의 유로화 강세에 따른 경쟁력 확보 차원의 생산기지 이전과, 장기간의 운영권 보장 등의 외국인 투자우대조치 등에 힘입어 외국기업의 지분투자 및 재투자가 활발히 발생하여 2002~05년간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보전에 기여함.
- 2006년 이후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증가, 투자가치 하락 등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우려가 증폭되어 FDI 유입 금액도 감소하였으나, 2008년도 독일 Daimler 그룹의 12억 달러 규모 투자 (10월말 협정체결)가 이루어지면서 FDI는 오히려 전년에 비해 늘어남 (단, 신규프로젝트는 30% 감소).
- 2007~13년 제2차 국가개발계획이 진행 중이며, 모든 프로젝트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2010년 이후 경기회복으로 EU 등 선진권 투자자의 대외투자자산 회수 움직임이 완화되면 FDI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68억 달러(2006)→ 56억 달러(2007) → 65억 달러(2008)

다. 정책성과

□ IMF, EU 및 세계은행의 긴급구제 금융지원 이후 금융위기 완화

- 헝가리의 유동성문제가 불거지면서 2008년 10월 16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외환스왑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50억 유로(73억 달러)의 긴급자금지원(유로존 이외 국가에 대한 최초의 직접금융지원 사례)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10월 28일 IMF(157억 달러), EU(81억 달러) 및 세계은행(13억 달러)은 총 251억 달러의 긴급구제 금융지원에 헝가리 정부와 합의함.
- IMF의 17개월 대기성차관(헝가리 IMF 쿼터의 10배에 해당) 지원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안정성, 장기적으로는 투자신뢰 회복 및 금융시장 불안해소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 있음. 지원조건은 헝가리 정부의 해외차입 의존을 감축하기 위한 재정통합 등의 구조조정, 사회지출 및 조세시스템 개혁, 긴축 재정정책을 통한 공공지출 삭감 등임.
- 헝가리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21억 달러를 인출하였으며, IMF 실사단의 제3차 경제상황 점검을 통해 상반기 말 정부 재정, 인플레이션, 외화보유액 등 구제금융 프로그램 이행 조건들이 충족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만기를 2010년 10월 5일까지 6개월 연장하였음.
- 헝가리 정부는 2009년 4월 자국 금융시장에서 국채 매각을 재개했으며, 7월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10억 유로 규모의 유로화 채권(5년 만기) 발행에 성공하기도 함.

□ 긴축 재정정책 지속 시행

- 2007년 초에는 재정적자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지방정부재정, 교육 및 보건부문에 대한 구조개혁 및 재정지출 축소조치를 취함. 또한 2007~13년 제2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 중인데, 인프라 구축과 공공부문 개혁에 사용될 재원이 기본적으로 EU 기금(85%) 및 기타협조용자(15%)에서 마련되어,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헝가리 정부에 도움이 되고 있음.

- 헝가리 정부의 2010년 예산안은 2009년, 2010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6.5%, 0.9%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내년 재정적자를 올해보다 0.1%포인트 낮춘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제한하는 목표 아래 편성되었으며, 지방정부와 대중교통 관련 공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였음.

□ 환율 및 종합주가지수 호전

- 유로화 대비 포린트화 환율은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권 투자자의 디레버리지 현상이 본격화 되면서 2008년 말 10월 261.1에서 2009년 3월말 309.2까지 상승하며 포린트화 가치가 급락하였으나, 2008년 3월 이후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임.

- 환율(유로화대비): 261.1(2008.10) → 309.2(2009.3) → 272.0(2009.8)

- 종합주가지수도 대외투자자산 회수 움직임으로 2007년 말 26,236에서 2008년 10월말 13,506로 급락하고 2009년 2월에는 10,109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완연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종합주가지수: 13,506(2008.10) → 10,190(2009.2) → 19,390(2009.8)

□ 2009년 들어 기준금리 위기이전 수준으로 인하

- 헝가리 중앙은행은 2006년 6~10월에 200bp, 2008년 1~5월 중 100bp의 금리인상 조치를 취한데 이어, 10월 23일에는 환율 방어 및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8.5%에서 11.5%로 300bp나 인상하였음.

- 2009년 8월에는 글로벌 금융환경이 개선되고 7월 유로본드 발행을 통해 재정적 관리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였으며, 환율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기준금리를 위기이전 수준인 8%까지 인하하였음. 이후에도 외환시장은 상당히 안정화 되고 있음.

-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헝가리가 체코, 라트비아 등과 함께 2014년에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 상 수 지	-8,261	-8,610	-8,922	-12,980	-3,362
경 상 수 지 / GDP	-7.5	-7.6	-6.4	-8.4	-2.7
상 품 수 지	-2,728	-2,572	452	175	4,873
수 출	61,688	73,457	93,855	106,644	108,702
수 입	64,416	76,029	93,403	106,469	103,829
외 환 보 유 액	18,296	21,316	23,773	33,620	38,662
총 외 채 잔 액	66,119	108,132	149,052	186,087	183,289
총 외 채 잔액 / GDP	60.0	95.7	107.4	120.3	125.6
D. S. R.	30.1	32.5	26.3	26.7	29.7

자료: IFS, EIU.

□ IMF 차관에 의한 외환보유액 증가

- 헝가리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기준으로 336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의 2.7개월분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이후 IMF 차관을 받으면서 외환보유액이 증가하여 월평균수입대비 외환보유액은 5개월 수준으로 개선되었음.

□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감소

- 2007년에는 상품수지 흑자에 힘입어 GDP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6.4%를 기록하여 개선되었으나, 이머징 유럽국가의 평균치인 1.2% 적자에 비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었으며, 2008년에는 내수위축에 따른 구매력 저하,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 및 유로존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GDP대비 경상수지는 -8.4%를 기록하였음.
-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발금융위기,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경색 등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헝가리의 주요수출시장의 경기둔화 및 침체가 지속되어 2009년 경상수지 역시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입 감소에

다른 상품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적자폭이 줄어들어 GDP 대비 경상수지는 -2.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총외채잔액 소폭 감소 전망

- 2005~06년 유동성 증가에 따른 저금리의 외화신용이 가능해져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외차입이 증가하면서 2006년이후 총외채잔액이 급증함에 따라 2008년말 총외채잔액은 1,861억 달러에 달함.
- 2009년 총외채잔액이 소폭 감소됨에 따라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나, GDP 대비로는 전년 120.3%에서 125.6% 수준으로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D.S.R. 여전히 20% 상회

- 총외채잔액 증가, 포린트화 약세 및 국제금리 상승기조로 외채원리금 상환비율이 2005년에 30%를 상회한 이후 동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들어 20%대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20%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외채상환부담은 해소되지 않았음.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2008년 4월 연립정권 붕괴

- 2005년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여권연합정당(MSZP,SZDSZ)이 단일후보 합의에 실패하면서 보수성향의 야권연합정당(Fidesz,MDF)의 라슬로 소움(Laszlo Solyom)이 대통령(5년임기)에 당선되었음.
- 페렌치 주르차니(Ferenc Gyurcsany)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당은 2006년 총선에서 의회내 소수 정당으로 집권하였으며, 이후 야당인 자유민주연맹(SZDSZ)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정부를 이끌어왔으나 2007년 의료개혁을 둘러싼 이견(주르차니 총리가 SZDSZ 소속의 보건부 장관을 해임)으로 SZDSZ당이 연정을 탈퇴함. 연정이 붕괴되면서 불안한 정치상황 및 이에 따른 개혁 지연현상이 나타났음.

□ 2009년 4월 과도(위기관리) 내각 출범

- 2009년 3월 2010년 임기를 앞두고 있던 주르차니 총리가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임으로 중도 퇴진하였으며, 4월 MSZP의 동의에 따라 고르돈 바이너지(Gordon Bajnai) 총리의 과도내각이 들어섰음. 바이너지 총리는 전 국가개발경제부 장관 출신으로 소속정당이 없으며, 국정운영에 있어 '일자리 창출, 포린트화 안정, 재정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에 따라 바이너지는 일부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중임.

□ 2010년 4월 총선에서 정권교체 예상

- 2009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제1야당인 중도우파 청년민주동맹(피데스, Fidesz)가 전체 22석 중 절반이 넘는 14석을 차지하였음(사회당은 4석 차지).
- 2009년 8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지 정당을 결정한 유권자 중 68%가 제1야당인 Fidesz를 지지하고 있으며, 여당인 사회당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16%에 그침. 조사 대상 전체의 지지율로도 Fidesz가 45%로 13%인 사회당 지지율의 3배를 넘어섬에 따라 차기 총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 사회동향

□ 간헐적 반정부 시위발생에도 사회안정 유지

- 2007년 2월초 및 3월 중순의 헝가리 시민혁명 기념일에도 부다페스트에서 총리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유혈사태로 확대되지는 않아 반정부 시위의 수위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소요 발생가능성은 사회안정을 위협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됨.
- 금융외환시장 및 유동성 불안으로 인하여 2008년 10월에 IMF 등으로부터 긴급 구제금융을 받는 등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긴축 재정정책 시행에 따른 정부지출 감축 등으로 실질소득 향상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경제난 해소에 대한 대정부 불만 및 시위 등이 발생한 바 있음.

□ 경제사회적 하위층인 집시 포용정책 실시

- 버이너이 총리는 2009년 9월 19일 헝가리가 통합을 이끌어 나갈 더욱 강한 집시 엘리트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국가가 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공직에 200명의 집시 대졸자를 채용하겠다고 밝힘. 집시 대졸자의 공직 채용은 10월부터 시작되며, 채용에 따르는 비용도 제공할 계획임.
- 헝가리 내 집시 인구는 전체 인구의 6~8% 정도인 60만~8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대부분 경제·사회적으로 최하층을 형성

3. 국제관계

□ 대외협력 관계 강화 모색

- 기존 EU 회원국과는 개별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으며, 2005년 1분기에는 프랑스와의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합의 문서를 별도로 체결하였고, 특히 중국의 대 EU판매 거점으로 중국과는 무역과 투자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이후, 동년 12월 EU 헌법을 비준하였고, 크로아티아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2006년 중반 이후 슬로바키아와 대립 상황 악화

- 2006년 6월 슬로바키아 총선 이후, 극우성향의 국민당(SNS)이 연정을 구성함에 따라, 의회에서 자국내 헝가리 소수민족에 대한 비방(민족주의자극), 적대적 태도, 독일인 및 헝가리인 소유 부동산 이양조치("Benes Decrees of 1945") 등이 현안으로 다루어져 양국간 긴장이 조성되었음.
- 2008년 10월, 슬로바키아 정부의 자국내 헝가리 소수민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슬로바키아 교육시스템 개혁 안에 나타난 헝가리인에 대한 교육기회 축소(예:헝가리인 학교의 교과서 지명표기에서 헝가리식 이름을 병용하겠다는 당초 약속 파기) 등으로 양국간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음.

- 2009년 8월 21일 쇼ୟ 대통령은 슬로바키아 코마르노에서 개최되는 11세기 헝가리 국왕 성(聖) 슈테판 1세 동상 공개행사에 참석하려 하였으나, 슬로바키아 정부가 이를 거절하여 주 헝가리 슬로바키아 대사관에 화염병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공적 업무 시 슬로바키아어 사용을 의무화한 개정법을 두고도 양국간 민족감정 대립이 고조되고 있음.
- 슬로바키아 인구 540만 명 중 10%는 헝가리 민족(마자르족)임.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1 (2009. 9)	C1 (2008. 11)
OECD	4등급 (2009. 1)	3등급 (2008. 1)
S&P	BBB- (2009. 3)	BBB (2008. 11)
Moody's	Baa1 (2009. 3)	A3 (2008. 11)
Fitch	BBB (2008.11)	BBB+ (2005. 12)

- Euromoney: 54/186(2009.3) → 64/186(2009.9),
I.I.: 50/174(2008.3) → 48/171(2008.9) → 55/177(2009.3)
- 최근 글로벌 유동성 악화로 타격을 받고 있는 헝가리에 대하여 주요 평가기관들로부터 등급 하향조정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08년 11월 Moody's가 A2에서 A3로, Fitch가 BBB+에서 BBB로, S&P가 BBB+에서 BBB로 헝가리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각각 한 단계 하향조정한데 이어, 2009년 3월 S&P와 Moody's은 각각 BBB-, Baa1으로 추가 하향 조정하였음.

□ 헝가리 정부채권 신용프리미엄 하향 안정화 추세

- CDS(Credit Default Swap)의 추이를 살펴보면, 5년만기 기준으로 2007년말 54.8bp에서 2008년 10월말 315.0bp로 급상한 데 이어, 2009년 2월에는 563.3bp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며 2009년 8월에는 244.3bp 수준을 형성함.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전액인수가능, 한도 적용 없음.
- 영국 ECGD: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네덜란드 Atradius: 최고 부보율 적용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89년 2월 1일 (북한과는 1948년 11월 11일)

□ 주요협정: 투자보장협정,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과학기술협정 (이상 '89년)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협정, 상사중재협정(이상 '90년), 사증면제협정('91년), 사회보장협정('06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헝가리와의 교역규모는 2004년~2006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8년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한 18.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대 헝가리 해외직접투자는 2009년 6월말 현재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189건, 3.5억 달러를 기록(투자누계 기준)하고 있음.

<표 4>

한·헝가리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대 헝가리	2007	2008	2009.1-8	주요품목
수 출	1,890	1,522	913	전자제품, 수송기계
수 입	258	361	207	축산물,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합 계	2,148	1,883	1,120	

자료: 한국무역협회

VI. 종합 의견

- 헝가리 경제의 장애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Twin-Deficit'(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거시경제 불안 및 대외거래 불균형 요소로 우려되는 상황이며, 2006년 이후 경직적인 재정 운용 및 과도한 외채상환부담이 경제성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음.
- 금융 및 외환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측면에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가 문제점이며, 특히 2008년 10월말 IMF, EU 및 세계은행으로부터 251억 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 받으면서, S&P, Moody's, Fitch 등 3대 신용도 평가기관들이 2008년 11월 일제히 헝가리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S&P, Moody's는 3월에 추가 하향조정을 실시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헝가리의 국제 신인도가 악화된 상태임.
- 그러나 2009년 3월을 저점으로 환율 및 종합주가지수 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동년 7월에는 유로채권 발행에도 성공하며 금융시장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IMF 차관 지원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긴축 재정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실업률이 9%대로 높은 상태여서 당분간 실물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조사역 고 안 나 (☎02-3779-5654)
E-mail: anna@koreaexim.go.kr